

CLUB STORY

세대로교회 어와나 클럽이야기

수요일 5시. 먼지가 뒤덮인 배명고등학교 강당으로 멘토님(선생님)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144개의 큼직한 매트를 깔기 시작합니다. 매트를 깔고, 현수막을 걸고, 태극기와 어와나 기가 세워질 때 쯤이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채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어와나 트랙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매주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곧이어 6시 30분. 스무 명 가까운 멘토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중한 저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하며 기도합니다. 몇몇 멘토님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오기 때문에 아직도 숨이 차 보입니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난 후, 세대로 어와나는 7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큰 목소리로 어와나 기에 대한 다짐과 단가를 부른 후 함께 십계명을 암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게임 디렉터인 최경직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게임이 진행됩니다.

세대로 어와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약 6년 전인 2005년 6월에 김대진 목사



님의 지도로 T&T와 불티단원들 30여 명, 그리고 멘토님들 열댓 명이 함께 클럽을 오픈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양승헌 목사님께서서는 아이들이 어와나를 통해 마음껏 뛰고 자라며 배울 수 있도록 교회의 가장 큰 공간을 어와나에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은 지하 교육 홀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어와나 친구들은 넓은 강당에서 마음껏 어와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세대로 어와나'의 친구들은 어와나에 오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세대로 어와나'는 T&T와 불티단이 함께 운영됩니다. 일곱 살 친구부터 6학년 친구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가 어린 동생들의 손을 잡고 함께 뛰며 응원하는 모습은 어와나를 통해 저들의 세상 안에서도 다음 세대로 사랑이 흘러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팀마다 '주장'을 세워서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주장들은 게임의 반칙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순서대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멘토님을 돕습니다. 매 학기를 마치면 그 해 주장을 했던 친구들은 함께 '주장여행'을 가는 혜택이 있어 아이들은 누구나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세대로 어와나'에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잠실 지역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어와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랑프리, 편파티, 초청잔치 등의 행사들이 있으며, 단원들이 직접 잠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로 어와나는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이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Story of SeDaeRo Awana Club

Wednesday 5 p.m, teachers, one by one, slowly gathered in the Bae-Myung High school auditorium covered with dust. They started to wipe the floor and to spread 144 giant mats. When they about to finished hanging banner and hoisting Awana flag, they dimly started to hear children' voice from the distance. Before wiped floor completely dried yet, the children ran the track with having full of happiness in their smile every week.

6:30 p.m. approximately 20 teachers gathered in one place and started praying. They prayed that they want to be Jesus fellow workers to teach his next generation justly with his words. Some of mentors seemed to have short breath because they just ran up to here right after finishing their works.

After rooting for each other, SeDaeRo Awana started on just at 7 o'clock. After pledging allegiance to Awana flag and singing Awana song, we memorized the Ten Commandments together in order not to forget about what commanded God's words to us today is as same as the other days. After that, Awana game was executed under the direction of a game director, Kyung-Jik Choi Pas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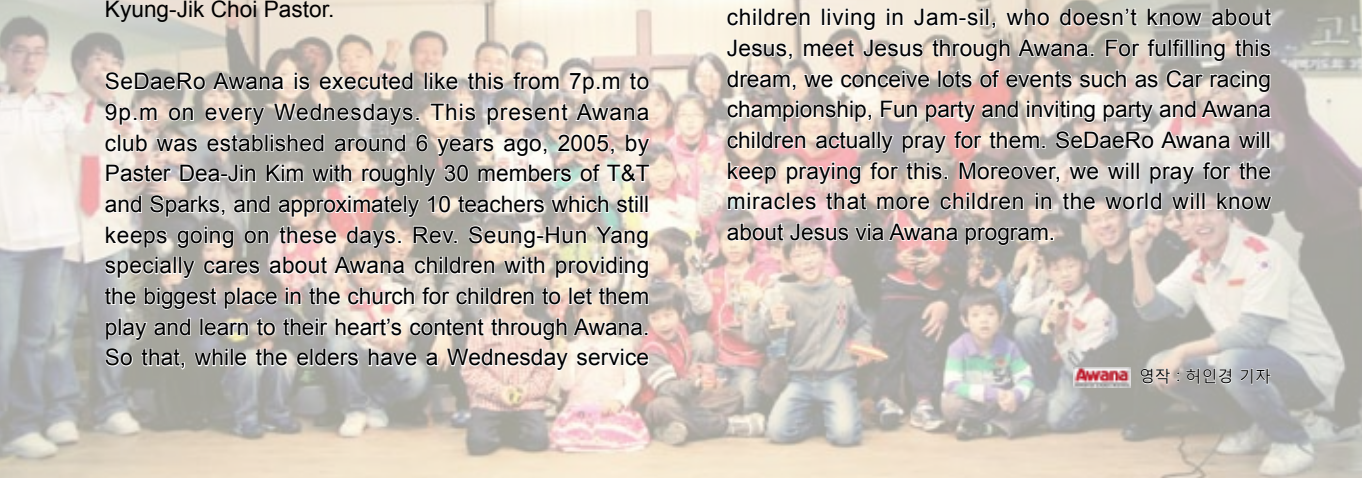
SeDaeRo Awana is executed like this from 7p.m to 9p.m on every Wednesdays. This present Awana club was established around 6 years ago, 2005, by Paster Dea-Jin Kim with roughly 30 members of T&T and Sparks, and approximately 10 teachers which still keeps going on these days. Rev. Seung-Hun Yang specially cares about Awana children with providing the biggest place in the church for children to let them play and learn to their heart's content through Awana. So that, while the elders have a Wednesday service



at the education hall underground, Awana children fully enjoy Awana program in a spacious auditorium. With the wholehearted attention and love of church, SeDaeRo Awana children are very pleased and enjoy coming Awana club.

SeDaeRo Awana is consisted of T&T and Sparks. From Seven years old children to 6th grade children play the game together. When we see that the older students hold the younger students hands to play the game and cheer their team together, love also seems to be passed down to this young generation through Awana. Specially, we set a leader for each team to develop leadership skill. Each leader checks whether there is foul or not in the middle of game and helps mentors to take everyone part in the game orderly. After done with every one season, there is leaders' trip so that everyone wants to be team leader.

There is a dream in SeDaeRo Awana that the children living in Jam-sil, who doesn't know about Jesus, meet Jesus through Awana. For fulfilling this dream, we conceive lots of events such as Car racing championship, Fun party and inviting party and Awana children actually pray for them. SeDaeRo Awana will keep praying for this. Moreover, we will pray for the miracles that more children in the world will know about Jesus via Awana program.



Awana 영작 : 허인경 기자